

다같이 놀자 지리산 한바퀴

1. 목적 및 배경

- 지역의 자연생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자연보전 의식 함양 및 지역기반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숲학교(), 자유학기제(), 생태관광(○)
- 프로그램명 : 다같이 놀자 지리산 한바퀴
- 대 상 : 가족 등 전연령
- 운영기간 : '20.1.1.(수) ~ 12.31.(목) 매일 10:00, 14:00
- 운영형태 : 당일형 4시간 /회
- 장 소 : 뱀사골탐방안내소 및 신선길 일원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의 이해, 자연해설 등
- 소요예산 : 2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남원시장장애인복지관 기관방문 및 홍보, 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탐방로 및 야영장,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야영장 및 주요 체류시설 배너 제작 및 사업 홍보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불안, 우울 등 10문항을 프로그램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일정표>

시간	주요일정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0:00~10:30	오리엔테이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운영 일정 안내 	탐방 안내소
10:30~11:00	뱀사골탐방안내소 가이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지리산 자연생태 전시관 - 2층 지리산 빨치산 이야기 및 전적비(총혼탑) 	“
11:00~12:00	반달이 꼬미와 함께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체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달이 상감공예 등 	“
12:00~13:00	점심식사	60'	지역식당	
13:00~16:00	뱀사골 계곡 힐링 트레킹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사골 신선길 걷기 - 뱀사골 자연해설 및 자연놀이 - 와운마을명품마을과 천년송 해설 	와운마을 천년송
16:00~16:30	마무리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나누기 	“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생태
관광

다같이 놀자 지리산 한바퀴

활동장소
소요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와운명품마을 천년송
60분
성인 등
20명/해설사

활동목표



- 국립공원 내 마을과 사람,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본다.
- 소나무과(소나무, 잣나무 등)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소나무 종류를 구별한다.
- 소나무의 열매, 솔방울의 씨앗 번식방법을 알아본다.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유의사항

- 시각, 촉각, 청각으로 자연을 느끼고 이상의 자연훼손 행동 주의한다.
- 탐방로에서의 과도한 행동을 삼가고 장애물에 유의한다.

단계	내용	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명찰 나눠주며 인사하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  <p>▲ 인원확인 및 소개</p>	10분
전개 (탐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운마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운마을 유래 - 와운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p>▲ 와운마을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운마을 수호신, 천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송 소개 • 소나무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의 상징 및 종류 - 소나무 구별법 - 소나무 번식법 	4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의 피톤치드 • 사람과 소나무 이야기 • 소감나누기 	1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와운마을이야기

와운마을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해발 800m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구름도 힘에 겨워 누워 간다는 첩첩산중 마을입니다. 과거 '눈골' '누운골'로 불렸던 마을은 천년을 훌쩍 넘어 1300년 전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은 뱀사골탐방안내소 자리에 있던 송림사(松林寺) 창건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운마을은 2015년에 국립공원명품마을로 선정된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와운마을이 자연생태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같이 상생하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다른 마을과 달리 국립공원의 잘 보존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운마을은 과거 함양, 남원, 구례까지 70리(약 28km)가 되는 멀고 먼 길이었습다. 마을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지리산 주능선을 넘어 하동장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뱀사골의 명소 중 당시 소금을 지고 오다 뱀사골 가파른 계곡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바람에 물색이 간장처럼 변했다는 '간장소'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운마을 천년송

마을의 명물은 천연기념물 제424호로 지정된 천년송입니다. 마을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소나무인 천년송은 선봉에서 영원령으로 타고 내려온 해발 800m 지점에 우뚝 솟아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산자락에 뿌리박고 선 소나무는 할매나무와 한아시(할아버지)나무 두 그루인데 이중 아래쪽 큰 나무(할매나무)가 천년송입니다. 높이 20m, 둘레 6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폭이 12m에 이릅니다. 천년송의 수령은 사실 1000년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해 왔다고 하니 대략 500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천년의 소나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천년동안 건강하게 자라 마을을 보살펴달라는 기원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송에 치성을 드리면 자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마을 부녀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이 소나무 아래서 태아에게 솔바람 소리를 듣게 해 일명 '솔바람 태교'의 원조가 됐고, 시인 송수권은 이 나무를 보고 '솔바람 태교'라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귀하게 여겨 매년 음력 1월10일 첫 새벽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수령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쳐흐르는 천년송의 당당한 품새가 지리산을 빼닮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 천년송 해설

소나무 이야기

소나무는 여러분이 본 것처럼 언제나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바늘같이 얇고 긴 바늘잎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를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나무와 비슷한 바늘잎을 가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백송이라는 나무들인데요. 여기 사진 4장중에 소나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맞춘 분들도 있지만 겉으로 보고 구별하기 어렵죠? 여기 백송인 하에서 구별하기 쉽지만 나머지 3가지 나무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런 나무들은 2개, 3개, 5개의 잎의 개수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나무는 2개의 잎을 가졌습니다. 잣나무는 잣이 많이 달리면 좋으니까 가장 많은 5개입니다. 여기 나머지 리기다소나무와 백송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나무들인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나무는 3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 지리산천년송

소나무 번식법

소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열매가 소나무의 열매, 솔방울인데요. 그럼 이 열매는 어느 나무의 열매인지 아는 사람있나요? 이 열매도 같은 소나무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모양이 다를까요?(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소나무 씨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나무 씨앗인데요. 여기 검은색이 씨앗입니다. 그럼 이 날개같은 건 뭘까요? 이것은 씨앗이 바람으로 멀리 날아가기 위해 달려 있는 날개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물에 젖어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두 솔방울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활짝 벌려서 씨앗이 날아가게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 물에 젖어서 솔방울이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오므려서 씨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가 바짝 마르고 건조할 때 이런 식으로 저절로 벌어지면서 씨앗이 바람에 의해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솔방울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 소나무 관찰 및 솔방울 느껴보기

마무리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헤어지기 전에 소나무에 대한 좋은 점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톤치드라고 아시죠?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려진 그 피톤치드를 소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10배 더 많이 내뿜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숲에 들어가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덕분이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피톤치드라는 살균성분을 몰라도 소나무 정화의 상징으로 여겼고 금줄, 결혼식 장식, 장례식 관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소나무들이나 다른 나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다시 방문해주세요.